

어느 임시 계약직 여성 노동자의 눈물

글 광주 조현정, 곡 김성만

♩ = 69

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(F#, C#, G#) and a 4/4 time signature. The tempo is marked as ♩ = 69. The score consists of ten staves of music, each with a line of Korean lyrics underneath.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notes to indicate the harmonic structure. The lyrics describe the struggles of a part-time female worker, including lack of vacation, unmet dreams, and the physical toll of their job.

축복 속에 - 결혼을하였 는 데 재계약 맘에걸 려서 -
 월차나특 별 휴가 - 꿈 도못 꾸고 - 신혼여행 못 갔 었 다
 사 랑 속에 - 아이를가졌 는 데 일자리잃을 까 봐서 -
 말 도못 하고 - 축복도못 받 고 - 하 혈로 몸을 앓았 다 - 뱃
 속 에 아이 를 - 안 고 임 시 직 계약 직 - 안 고
 무거운몸 이겨 - 계약직버 티기 - 돌아 - 서 평 평을 - 었 다 을
 해 만 념 기 - 면 이 번 만 념 기 면
 재계약관 리자 - 눈치만살 피며 - 손 모아 걸어 왔 었 다
 불하나밝 힌 길 사그러질 까봐 - 손 모아 걸어 왔 었 - 다